



미국 기준금리 동결, 다시 불확실성의 늪으로

Strategist

김정현

6915-5792

john@ibks.com

- 9월 FOMC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미국 경제상황과 금리 인상 시 중국 등 신흥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고려해 기준금리 현행 0.00~0.25%로 동결
- 엘런 의장,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 열려있어”
-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연기로 단기적인 안도 랠리 보일 가능성 높아, 그러나 이 안도 랠리는 그리 길게 지속되지 못할 것이며 곧 10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 될 것으로 예상돼 차츰 차익실현을 하고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기존 전망과 전략을 유지

미국 9월 FOMC 기준금리 동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00~0.25%로 동결했다. 엘런 의장을 포함한 FOMC 위원 10명 중 9명이 기준금리 동결에 찬성했고, 래커 리치먼드 연은 총재만 0.25%p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가계 소비와 기업 고정자산 투자는 완만하게 증가해왔고, 가계 부문도 추가로 성장세를 보였지만 순수출은 약한 모습을 나타냈고 고용시장은 견고한 고용증가와 실업률 감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고용시장 지표들은 노동력의 저활용도가 올해 초부터 감소한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은 부분적으로 유가 하락과 에너지 이외의 수입 가격 하락으로 장기 목표치를 계속해서 밀려다 시장을 기준으로 판단한 인플레이션 보상 지표는 낮아졌지만 조사를 통한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여전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상황이 경제활동을 억제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럼에도 적절한 부양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확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연준은 향후 고용시장 조건과 물가지표, 물가상승 전망 그리고 금융시장과 국제적 상황을 고려해 향후 금리인상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dot plot)는 올해 말과 내년 말, 내후년 말의 금리 중앙값을 각각 0.375%, 1.375%, 2.625%로 나타내 지난 6월 각각 0.625%, 1.625%, 2.875%였던 금리 전망치를 하향하며 향후 연준이 통화 긴축을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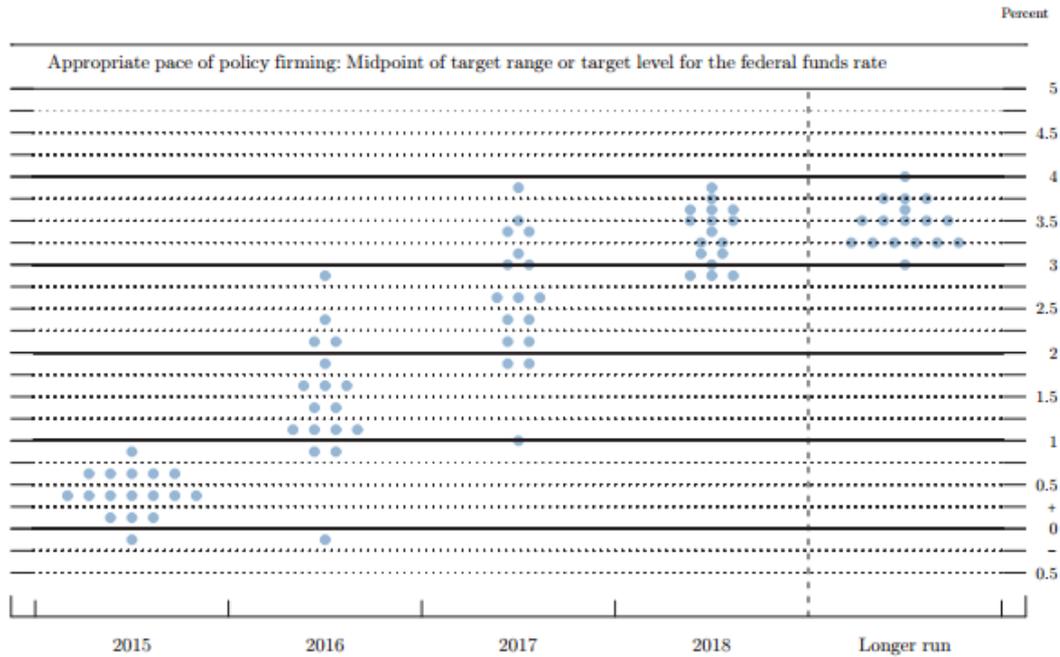
또한 연준은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1.8~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난 6월 전망치인 2.0~2.3%보다 하향 조정했고 실업률 전망치도 5.0~5.2%에서 4.9~5.2%로 낮췄다.

그림 1. 연준 위원들의 경제 전망

Variable	Median ¹					Central tendency ²					Range ³				
	2015	2016	2017	2018	Longer run	2015	2016	2017	2018	Longer run	2015	2016	2017	2018	Longer run
Change in real GDP	2.1	2.3	2.2	2.0	2.0	2.0-2.3	2.2-2.6	2.0-2.4	1.8-2.2	1.8-2.2	1.9-2.5	2.1-2.8	1.9-2.6	1.6-2.4	1.8-2.7
June projection	1.9	2.5	2.3	n.a.	2.0	1.8-2.0	2.4-2.7	2.1-2.5	n.a.	2.0-2.3	1.7-2.3	2.3-3.0	2.0-2.5	n.a.	1.8-2.5
Unemployment rate	5.0	4.8	4.8	4.8	4.9	5.0-5.1	4.7-4.9	4.7-4.9	4.7-5.0	4.9-5.2	4.9-5.2	4.5-5.0	4.5-5.0	4.6-5.3	4.7-5.8
June projection	5.3	5.1	5.0	n.a.	5.0	5.2-5.3	4.9-5.1	4.9-5.1	n.a.	5.0-5.2	5.0-5.3	4.6-5.2	4.8-5.5	n.a.	5.0-5.8
PCE inflation	0.4	1.7	1.9	2.0	2.0	0.3-0.5	1.5-1.8	1.8-2.0	2.0	2.0	0.3-1.0	1.5-2.4	1.7-2.2	1.8-2.1	2.0
June projection	0.7	1.8	2.0	n.a.	2.0	0.6-0.8	1.6-1.9	1.9-2.0	n.a.	2.0	0.6-1.0	1.5-2.4	1.7-2.2	n.a.	2.0
Core PCE inflation ⁴	1.4	1.7	1.9	2.0		1.3-1.4	1.5-1.8	1.8-2.0	1.9-2.0		1.2-1.7	1.5-2.4	1.7-2.2	1.8-2.1	
June projection	1.3	1.8	2.0	n.a.		1.3-1.4	1.6-1.9	1.9-2.0	n.a.		1.2-1.6	1.5-2.4	1.7-2.2	n.a.	
Memo: Projected appropriate policy path															
Federal funds rate	0.4	1.4	2.6	3.4	3.5	0.1-0.6	1.1-2.1	2.1-3.4	3.0-3.6	3.3-3.8	-0.1-0.9	-0.1-2.9	1.0-3.9	2.9-3.9	3.0-4.0
June projection	0.6	1.6	2.9	n.a.	3.8	0.4-0.9	1.4-2.4	2.4-3.8	n.a.	3.5-3.8	0.1-0.9	0.4-2.9	2.0-3.9	n.a.	3.3-4.3

자료: FRB

그림 2.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



자료: FRB

기자회견에서 옐런 의장은 최초 금리인상 중요성이 과장되어선 안되며 금리 인상은 시기보다 경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리 인상 앞서 경제 상황을 평가할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며 10월 FOMC 회의(10월 27~28일)에서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10월 회의 이후에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연기에 따른 국내증시 영향

간밤 미국 FOMC 회의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연기로 글로벌 증시는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 지연에 따른 안도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 안도 랠리는 그리 길게 지속되지 못할 것이며 곧 10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 될 것으로 예상돼 차츰 차익실현을 하고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기존 전망과 전략을 유지한다.

올해 남은 FOMC 중 9월과 12월은 FOMC 회의 후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으나 10월은 성명만 발표한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장 낮게 예상했었는데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와 록하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에 이어 옐런 의장도 10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간밤 미국 증시도 금리 동결 소식에 가파르게 상승폭을 확대하다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를 통한 향후 점진적 금리인상 시사가 오히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의미라는 분석에 다우와 S&P500 지수는 하락 마감했다.

이에 따라 9월 기준금리 인상 연기에 따른 잠시 동안의 안도 랠리 후 곧 10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은 재차 확대되며 국내증시도 이에 따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단 기준금리 인상 연기에 따른 안도 랠리는 9월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9월 말은 한 달의 마지막이자 분기의 마지막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률 관리를 위한 매매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이나 기관의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 중 8월 중순 이후 KOSPI의 반등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단기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늦어도 9월 30일 장 마감 전에는 차익 실현을 하고 배당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후 10월을 맞이하는 전략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